

식민지 산물로 탄생한 조선영화... 짧지만 뜨거웠던 시대상



조선영화는 서구 근대와 일본 근대 사이에 만들어진 식민지 근대의 산물이다. 1919년 개관한 경성극장의 외관, 토키(발성) 방식으로 제작된 '춘향전', 영화 '국경'의 한 장면. <들베게 제공>

1876년 개항과 함께 조선은 빠르게 자본주의적 세계질서에 편입됐다. 근대사회로 이행할 하게 된 것인데, 이 무렵 조선 문화의 획기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른바 활동사진이 등장한 것이다.

조선 영화는 서구 근대와 일본 근대, 서구 영화와 일본영화 중간에 만들어진 식민지 근대의 산물이다.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아 탄생부터 존립까지, 근대 한국영화를 다룬 책 '한국근대영화'(1892년에서 1945년까지)가 발간됐다. 필자는 영화 관련 전문가들로 이효인 경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정중화 한국영상자료원 선임연구원, 한상언 영화연구소 대표 등이다.

필자들은 짧지만 뜨거웠던 시대의 영상, 최초의 한국근대영화 연대기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특징적인 것은 책에서 '근대영화'라는 용어와 개념이 최초로 공식화됐다는 점이다.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자본주의적 상품으로 재탄생한 영화는 전적으로 일본이라는 국가체제와 경제 시스템 하에서 조선에 유입됐다. 비록 조선영화의 근대가 식민지 상황이라는 한계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속에서 일궈낸 조선인, 조선영화라는 독자적 자의식은 그 시대가 남긴 영화와 영화적 행보 속에 투영돼 있다. 저자들이 일제 강점기 조선영화를 '한국근대영화'라고 명명한 이유는 조선영화가 조선인이 만들어낸 대표적 근대의 장면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의리적 구토'는 조선인이 제작한 최초의 영화다.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상영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한국근대영화사

이효인 외 지음

됐는데 1963년 한국영화인 협회에서는 이를 한국 영화의 기점으로 삼는다. '영화의 날'로 지정된 것은 그런 연유와 무관치 않으며, 올해가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이라는 사실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책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한국영화의 다양한 근대성 논의를 세 명의 저자가 하나로 엮어낸 15년 연구 결실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에서는 9편의 조선영화 필름이 차례로 발굴됐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2014년까지 일본 잡지와 매체 속에 남은 조선영화 기록을 집대성했다. 그간 출간된 통사 형식의 한국영화사에서 다루었던 근대기 영화에 관한 시각을 전환하고 영화사의 누락된 부분을 채웠다.

1892년 인천에는 조선 최초의 극장이 설립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 맞아

1892년에서 1945년까지

한국근대영화 새롭게 조명

'의리적 구토' 조선인 제작 첫 영화

최초의 극장·무성·발성영화 등

일제강점기 조선영화의 모든 것

된다. 1부에서는 이 시기부터 무성영화가 제작돼 영화 제작의 틀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던 1925년까지를 다룬다. 19세기 말 개항장에 들어선 '극장'은 전 근대 유교문화 아래 돈을 지불하고 흥행물을 거래하는 문화가 없던 상황에서 자본주의 흥행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1910년 한일병합(경술국치) 이후 조선은 일본의 영화산업의 소비지로 구조화됐다. 조선 사람들은 전통 연희를 보던 구경꾼에서 흥행물을 소비하는 근대적 관객으로 재탄생했다.

단성사, 광무대 등에 이어 1912년에는 조선인을 위한 활동사진과 우미관이 설립됐다. 우미관은 일본인 업자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영사기사와 번사 그리고 악사 등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조선 영화인이 탄생

한다. 1923년 극영화 '국경'과 조선의 고전을 소재로 한 '춘향전'이 제작됨으로써 극영화시대가 도래한다. 특히 1920년대 초 윤백남, 조일재 등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회사는 '아리랑'과 같은 근대적 가치 영화 탄생에 인적·물적 토양을 제공한다.

이로부터 10년 후 조선 최초 토키(발성) 영화 '춘향전'이 제작됐다. 2부는 이 시기를 이끈 조선 영화인들과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 매체로 등장한 라디오 방송, 1920년대 영화사에서 중요 사건인 카프영화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춘향전' 이후 조선 영화계는 질적 변화와 세대교체를 이룬다. 발성영화시대에 진입한 이 시기부터 해방을 맞이한 1945년까지 조선 영화는 끊임없이 '생존'을 모색해왔다. 1930년대 중반 발성영화 국면을 변화시킨 것은 일본 영화 촬영소에서 수련하고 돌아온 조선 영화 청년들이었다.

1940년 '조선영화령'으로 출발한 식민지 조선의 영화 통제는 1944년 제작부터 배급까지 단일한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조선 영화인들은 대부분 통합된 회사 직원으로 수용된다. 이 같은 과정은 친일이나 반일, 협력이나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복잡한 다채로운 문화적 역동성을 낳게 된다. 조선영화는 그렇게 해방공간으로 이어진다.

<들베게·3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박사·소설가>

블러디 프로젝트 그레이엄 맥레이 버넷 지음, 조영학 옮김

1869년 스코틀랜드 북부 한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아홉 가구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 켈투어에서 가난한 소작농 아들인 열일곱 살 로더릭 맥레이가 세 사람을 죽인 것이다. 로더릭은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이 범인임을 밝혔다.



2016년 맨부커상 최종 후보자인 스코틀랜드 작가 그레이엄 맥레이 버넷이 '블러디 프로젝트'를 펴냈다. '가디언'이 '올베르토 에코가 19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부활한 듯하다'고 평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 받은 소설은 2016년 뉴스위크 직원들이 뽑은 '올해의 책' 중 하나로 선정됐다. 또한 2017년 선데이 헤럴드 문화상 '올해의 작가'로도 뽑혔다.

'하나의 살인 사건, 서로 다른 기록들'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소설은 생생한 스코틀랜드 풍경 속에서 찾아가는 사건의 진실에 초점을 맞췄다. 작품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진술서, 로더릭 맥레이의 옥중 비망록, 부검 보고서, 재판 기록 등으로 이루어져 마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로와 범행 동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 카미나 머지슨은 로더릭이 예의바르고 친절한 소년이었다고 말한다. 반면 목사 제임스 켈브레이크는 로더릭을 악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라고 증언한다. 여기에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사와 변호사, 의사와 학자들의 의견도 갈린다.

작가는 고지대 특유의 생활상, 소작농을 둘러싼 착취와 억압, 당시의 사법제도를 정확히 재현했다. 과연 범인은 광기에 사로잡힌 악마인가,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가련한 인간인가.

<미메시스·1만3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들라스의 발 이상길 지음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하버마스, 기든스, 고프먼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회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매년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부르디외를 인용하거나 부르디외를 다룬 인용서를 다룬 단행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부르디외의 삶과 사상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부르디외의 수용 문제를 성찰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아들라스의 발'이 출간됐다. 문화연구자인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이상길 교수가 발간한 '아들라스의 발'은 부르디외의 삶과 학문 세계에 대한 정직한 탐구서다. 무엇보다 새로운 사유의 장을 여는 '방법'으로서의 부르디외를 제안한다. 저자는 그동안 한국의 미디어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연구를 수행해왔으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책을 써왔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지식인의 초상'에서는 부르디외의 생애와 학문 세계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과 당대 프랑스 정치, 역사, 학문적 상황을 분석한다. 또한 부르디외의 지적 기획이 그가 거쳤던 사회적 궤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진화해갔는가를 조명한다.

2부 '이론적 지평'에서는 장(場)이론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며 이를 경험연구에 투입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을 검토한다. 일반적인 장이론은 '어떤 형태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장(場)의 사건은 다른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학설'이다. 저자는 분석의 틀로서 장이론이 지닌 난제들과 그 보완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3부 '수용의 단층'은 부르디외의 사회학을 '서구 이론'으로 대항해 우리 학계가 부르디외의 이론을 어떻게 수용하고 이 과정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문학고지서사·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에 뛰어든 세계사 김영진 지음

문학작품에는 작가가 바라본 시대의 풍경, 작가의 숨결·체취가 담겨 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머나먼 과거의 한 순간 속으로 빠져든다. 작가들은 작품 속 인물들에게 시대를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맡는다. 고대와 중세의 길잡이는 영웅이었다.



역사학자 김영진씨가 펴낸 '문학에 뛰어든 세계사'는 트로이 전쟁부터 대항해시대까지 영웅의 탄생과 몰락, 세계사의 대서사시를 담았다. 지은이는 책을 줄기가 되는 '일리아스', '니벨룽의 노래', '롤랑의 노래', '돈키호테' 등 네 편의 고전문학을 통해 그 역사적 배경을 되짚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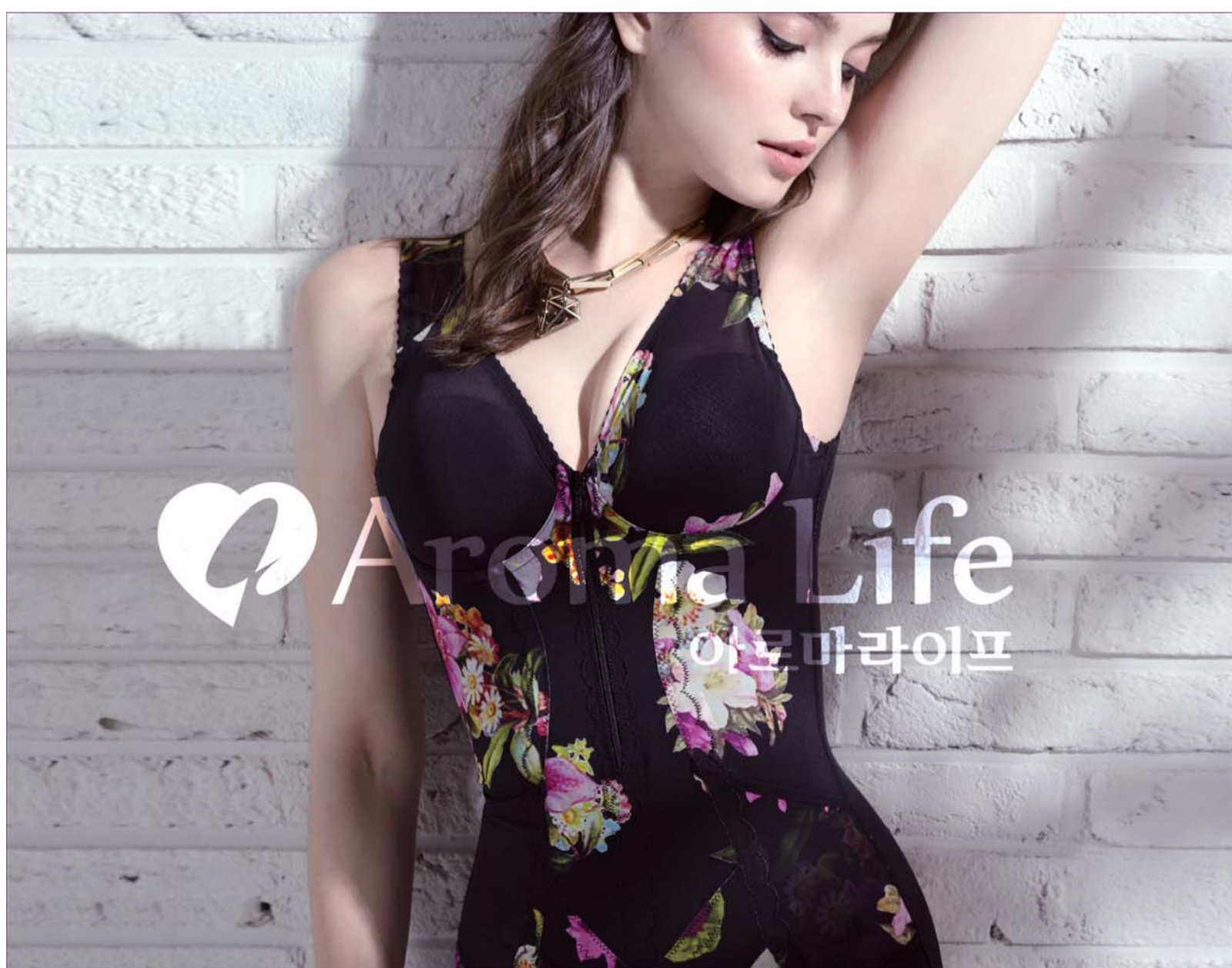
책은 당시 사건과 사건 사이 작가의 상상이 더해진 내용에 관해 역사적으로 세밀한 해석을 덧붙인다. 신화와 이야기의 극적 요소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역사 속 실제상황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다.

지은이는 특히 인물에 관한 서술에 공을 들였다. 각 장의 '캐릭터 해부하기' 쪽지는 다채롭고 생동감 있는 인물평과 함께 각 인물의 성격에 따른 영웅의 면모에 집중한다. '일리아스'의 아킬레우스는 고대 그리스로, '니벨룽의 노래'의 지그프리트는 중세 초 게르만 국가로, '롤랑의 노래' 롤랑은 샤를마뉴의 시대로 안내한다.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는 영웅들의 시대에 작별을 고하고 이성이 지배할 새 시대의 문을 열어 쓸쓸히 퇴장한다.

중세를 넘어 근대에 들어서면서 더는 영웅이 등장하지 못한다. '문학에 뛰어든 세계사'는 영웅의 시대를 끝내고 시민의 시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세계의 역사를 다룬다. 이와 함께 당시 세계정세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17장의 지도와 등장인물 등이 그려진 68장의 도판이 수록돼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들녘·1만5000원>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